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의 목표와 방향

김 영 원

(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1. 목표

우리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월 6일 출범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그 산파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로 소비자가 축을 이루는 24개 단체들이 참가하여 90년대 역사적인 국민운동의 거보를 내어딴게 되었다. 이어서 생산자 단체(농민·농업운동조직)들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명실공히 국민운동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농축산물 먹기 국민운동이 전개될 완전개방이라는 90년대의 상황에서 차지할 역할과 의의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6가지 역할과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1)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인 농업의 보호를 위해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민의 몰락은 급진되고 있다. 지금 농촌에는 농업을 이을 후계자도 없고 안심하고 심을만한 작목도 없다. 이것은 우리농업의 근원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다.

이것이 강자의 요구앞에서 약자인 농업과 농민이 희생의 양이 되어 개방화시대에 농업의 국제화라는 이름

으로 우리농업의 포기를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세계의 모든 주권국들이 주곡의 자급(농업보호)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까닭은 세계2차 대전이후 미국이 식량으로 세계를 제패해 왔다. 그래서 식량이 세계전략의 무기로 쓰여졌고 또,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이 망하면 경제도 나라도 무너진다.

(2)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본이며,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최대의 자산이다. 건강의 열쇠는 안전한 먹거리이다. 「정부가 지난해(1989) 9월 1일부터 국내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설정하고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산지까지 추적하여 폐기처분하다」 라고 발표했다(그것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발표의 배경은 지금 농약, 제조제,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해 화학농법으로 양산한 농산물속에 잔류하는 농약의 독은 이제 규제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끼칠 피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은 국내농업이 생산한 농산물보다 농약오염은 가중되고 있다. 그 까닭은 우리농산물을 재배과정에 사용된 농약이 잔류하는

것 뿐이지만 미국은 수출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장기저장, 수송과정에 발생하는 바그미와 곰팡이의 방제를 위해 농약을 수확후 창고와 사이로, 선창, 콘테나, 포장안에 농약사용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 농업성(省)과 주 농과대학이 그 지침을 만들고 지도한다.

바그미의 2세와 3세의 유충까지 부화하지 못하도록 장기잔존농약이 처리된다. 그 농약을 고루씩는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또 수출곡물에 사용된 농약이 미국에서는 최기형성물질과 발암성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1984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OPP, EDB, TBZ 같은 농약이 처리되어 하역을 하는데도 건강에 지장이 있다고 미국 부두노동자들이 하역을 거부한 파업도 있다.

그리고 먹거리의 지역성의 중요함이다. 즉 그 지역에서 나는 식품이 그 지역사람의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먹거리와 환경과 인간은 일체를 이룬다. 오랜세월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와 환경속에서 적응하며 조화를 이루며 존속한 식품이 역시 그 생태계속의 일원인 인간과 일체를 이룬다.

(3) 농업생태계(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해(생명문화의 재건)

농업은 본래 생명에 관한 산업이므로 인간의 생명만 지탱할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왜경의 마음도 길러준다. 농업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산업, 푸르름의 환경산업이기도 하다. 자연의 은혜를 인간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고 국토와 생태계를 보존하는 소중한 산업이다.

오늘의 농업생산기반인 토양 농업용수 등 농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간다. 그리고 거기서 오염농산물이 양산된다. 이것이 현상적으로는 공업화, 도시화, 농업의 화학화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공업을 버리고 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다만 오늘의 공업의 소재와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생태계의 파괴라는 위기의 본질은 현대사회를 성립전개시키는 자체 존속발전을 위해 구축한 산업사회의 가치

관과 문화의 위기이다.

(4)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천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해야 약 4천만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해마다 수입량은 증가되고, 반면 자급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요건이다(1천만톤과 국가안보). 예기치 못할 기근과 흉작 그리고 전쟁같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식량이 세계전략의 무기로 쓰이고 있는 한 언제든 식량이 올 수 없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세계의 곡창인 미국농토에서 급진되고 있는 농토의 사막화, 염화현상의 피폐화 이변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세계식량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을 말해준다. 주권국에 대한 식량의 대외 의존은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진다.

(5) 민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식량의 자급도는 민족의 자립도(團野信夫).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자급도는 38%,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지표 15% 하락하여 농업문제 해결없이 민족문제 해결없다.

(6) 세계평화를 위하여

식량이 세계 전략의 무기로 쓰이는 한 세계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세계 모든 독립국들이 자기나라 식량자급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나라가 서로 이런 상대국의 노력과 의지를 존중하고 실현될 때 세계 평화도 실현될 것이다. 미국이 식량을 세계전략의 무기로 쓰는 한 세계기아문제는 금후 몇년든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으로 남아 있을려면 우리의 식량자급체제를 돕고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단목에서 식량문제가 직면한 질과 양적인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식량은 결코 남는 것이 아니고, 과잉과 부족이 공존하고 있다. 일부식량보유국의 잉여는 편제에 불과하다. 지구상의 기아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분배의 잘못으로). 미국정부가 발표한 「서기 2천년의 지구」에서 “인구증가

에 식량증산이 따르지 못해 서기 2000년에는 13억이
기아자가 된다”고.

식량의 세계를 제패한 미국의 전략이 가져온 것

2차 대전이후 미국은 식량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또
한 계속 제패하기 위한 무리한 농업증산정책을 써 왔다.
농업을 기업화, 화학화, 기계화, 단작화로 무리하게 추
진했다. 이 미국의 증산정책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 ① 공황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농업위기 초래
- ② 미국의 농업생산기반(농토)의 붕괴
- ③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농업·농민의 몰락

첫째, 미국은 세계의 곡물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낮은
곡물가격으로 덤핑수출을 해야 했다. 이것을 가능케 하
기위해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보다 낮게 책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미국농민의 소득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부
족불 제도를 썼다. 그런데 이 부족불이 시장가격, 생산
고스트 이하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부족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미국농가의 파산은 줄을 이었고, 지방에서는
회사의 도산, 학교와 협회의 폐쇄도 일어나고 있다. 현
재의 미국농업정책의 추진이 10여년 간에 농민의 자살
율도 상승되고 있다고.

이와 같은 미국의 농업위기가 미국 한나라의 경제틀
속에서는 해결될 수 없게 되어 이 위기를 온 세계를 분
산수출하는 것을 일컬어 「농업의 국제화」라는 말로 통
용된다. 슈-퍼 301조가 동원되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강요된다. 레이건 정권은 미국의 농업을 전세계로 수출
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책적 양식으로 85년도의 그 농
업협안을(식량안전보전법) 제정한 것이다.

둘째, 붕괴되어가는 식량생산 기반. 현재 세계에서
식량수출국은 북미, EC, 대양주, 알젠틴, 타이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그중 세계수은의 절반이상의 미국농토
에서 나온다.

이 미국농토에 일어나고 있는 이변은 놀라운 것이다.
88년 미국내 한밭에서 보여주듯이 미국농업지대의 사
막화 현상 등 토양파괴와 농업용수부족 등의 불안 등

식량공급은 결코 안정되어 있지 않다.

예기치 못할 기상이변으로 일어날 기온이나 전염감
은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은 장기적으로 세계 식
량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

미국 대통령부의 상당기구인 「환경자문위원회」가
1981년에 발표한 「미국의 사막화」란 보고서에 “현재
이미 미국 전토지의 10%에 해당하는 2억 2천 5백만 에
이커의 토지가 심한 사막화 현상을 들어내고 있는 한편
그 두배에 가까운 면적이 사막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
다.” 고

한밭 등 자연기상의 이변으로 일어나는 흉작을 천재
로만 생각했던 통념을 뒤엎고 있다. 이젠 일종의 인재로
설명된다. 이젠 24 절후가 농사에 통하지 않는다. 지난
100년여간에 인간활동(공동화, 도시화 등)에 의한 기
상변화는 전체 기상변화 요인의 17%로 설명되던 것이,
최근 10년 여간에 30%로 올라갔으며 금세기말에는 인
위적 오염이 끼치는 기상변화에 대한 영향은 50%를
넘게 될 것이라 한다. 기상학자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이대로 나간다면 30~40년 후에는 이상기상의 100%가
인공활동에 의하여 일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셋째, 한국 등 개도국 농업농민의 몰락.

지금의 농업을 이를 후계자도 없지만 안심하고 심을
작목이 없다.

이것은 우리농업의 근원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다.
한국농업 몰락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의
잉여농산물이다. 이것이 한국농업의 주요작목을 파괴
해가면서 동시에 농업을 지배하는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미국은 집요하게 ▲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요한다.
(301조) ▲ 농작물 종자의 육종 보급을 장악한다. ▲ 생
산시설의 차관을 공여한다. ▲ 비료, 농약, 농기계 공장
을 지배한다. ▲ 기후 관측의 예측 ▲ 농업전문가 훈련
▲ 나아가서 도시민의 소비화는 주식을 밀로 바꾸려 한
다(영양학자까지 동원) ▲ 식료품과 양념류 사료작물,
공업원료(면화 면사 등)를 직접 보급하므로 지배체계
를 공고화 한다. 국내농산물가는 점점 하락되지만 수입
농산물가는 점점 인상되고 있다.

대안

① 인간존재의 근간이 되는 식량공급을 소수의 나라가 지배해서는 안된다. 각국, 각지역에 있어 생태계에 적합한 식량자립이 중요하다. 이에 기초한 다양성이 각국, 각지역의 자립성만이 아니고 지역 전체의 안정을 보증한다고 생각한다.

② 농산물 무역은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쪽의 필요에 응하여 행해져야 한다. 일부의 농산물 과잉국은 그의 조정에 있어 타국의 농업의 파괴를 가져오는 수출을 삼갈 것이며, 이윤 일변도에 기울지 않도록 가족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 식량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③ 일부 나라들의 큰폭의 무역흑자는 극소수의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다. 과도한 공업화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수입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업생산과 공업제품의 수출에 있어 적정수준 농공간의 소득바란스 등을 모색함으로써 해결 할 것이다.

④ 환경조화형 농업으로서 자연농법, 유기농법, 감, 농약운동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환경조화용 농법을 실현하는 하나의 좋은 경영형태는 환경의 다양성에 따라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경영이다.

⑤ 식량은 단순히 영양원에 머물지 않는다. 식량을 수확하고 기르는 노동의 과정에서 길러진 의식이나 상부상조 등의 사회적 협동성을 통하여 각국 각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기초를 쌓아왔다. 식량생산을 중심으로 한 축제나 각국 각지역에 전수된 특유의 요리법이나 식생활 체계를 재평가하여 발전시키는 일이 소중하다.

⑥ 이상의 방향을 향해 우리는 자유무역원리를 극복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의 틀(질서)을 수립하기 위하여 폭넓게 정부와 국제기관이 일해 줄 것을 호소한다.

2. 방향(실천과제)

우리농산물먹기 국민운동이 해야할 일은 앞의 목표

에서 제기한 6가지 의의에 대한 현실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실천가능한 일들을 생활화 하는 일이다.

(1) 우선 수입농산물이 농약 등 유해물질로 가중오염되고 있는 실상과 농업지배구조를 온국민이 알도록 한다(교육, 홍보, 캠페인, 가공제품 불매운동 등).

(2)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인 농업과 그 주역인 농민 그리고 온국민의 건강과 생명, 자연생태계(농업생태계)의 보호와 나라의 안보, 민족 통일,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우리농산물을 먹는 것이 그 첩경이라는 것을 신념화 한다.

(3) 생산자인 농민과 도시소비자가 서로 믿음이 있는 직거래 유통을 정착시킨다(가능한 품목과 가능한 지역부터).

(4) 우리농산물이 궁극적으로 생명문화의 기본으로서 유기농산물로의 전환을 위한 생산현장을 확대한다.

(5) 생태계의 파괴라는 생존위기의 본질의 현대사회를 성립 전개시켜온 자체존속 발전을 위해 구축한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위기 이기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생명문화를 창조해 간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이 있다.

우리농산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이미 사라져 버렸거나 사라져가는 우리농업의 주요작물들(밀, 콩, 보리, 옥수수, 유채 기타 등) 「이것이 우리농산물입니다」하면서 국민들의 식탁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 이미 무너져 버린 그 작목의 생산기반을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 것인가? 몇년이 걸려 가능할 것인가? 더구나 우리농정이 국제화 개방화라는 이름으로 자국 농업을 포기해버린 농정과 외국농축산물이 우리식생활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식량수출국은 막강한 힘으로 밀어 부치면서 우리의 이런운동을 냉소하는 터에! 그래서 민족자주정권과 민주농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국민의 각성과 조직화된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아무것도 극복될 수 없다. 우리농정의 기초에는 철학도 민족도 내일도 없기 때문이다. **●**